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모색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김은정** · 백혜정*** · 김희진****

초 록

본 연구는 전국의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이곳에서 생활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모색 과정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trauss & Corbin(1990)의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분석과정을 거쳤다. 분석결과, 이들은 '1차 사회화 환경의 붕괴(인과적 조건)'로 인해 가정과 학교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결과 집을 나와 길거리 생활, 아르바이트, 빚/범죄에의 연루 등 '한국사회의 통상적인 청소년 사회화 과정 밖에서의 삶(맥락적 조건)'을 살고 있었다. 이러한 생활을 하다가 '시설 생활을 시작(중심현상)'하여 신체적, 심리적 휴식 및 안정을 갖게 되면서 전환의 계기를 갖게 된다. 또한 시설을 통해 학업지도, 심리상담, 취업 관련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지원 및 지지(중재적 조건)'를 받게 되면서 청소년 자신도 '자립을 위한 노력과 시도(작용/상호작용)'를 하게 되어 자립(결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된다. 그러나 모든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이러한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 가면서 자립을 위한 기틀 마련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각 단계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다양한 난관이 있으며 이에 부딪혀 좌절하고 방황하면서 자립 의지가 꺾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제안은 이들의 자립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각 단계에 존재하는 난관과 장애물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바탕으로 이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가정 밖 청소년, 근거이론, 1차 사회화 환경의 붕괴, 통상적 사회화 과정 밖에서의 삶, 시설 생활, 자립

*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8년에 수행한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의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작성되었음.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제1저자, ejkim@duksung.ac.kr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신저자, hbaek@nypi.re.kr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신저자, heui529@nypi.re.kr

I. 서 론

자립은 타인의 도움 없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하면서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원활한 사회적 관계가 가능한 독립적인 상태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2018; 김정연, 하지선, 김인숙, 2011; 신혜령, 2001 등). 자립은 정신적이나 신체적 이유 등을 비롯하여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발달과제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기대하는 궁극적인 성과 역시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과 자립이다. 과거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의 주요 과업이었던 졸업-취업-결혼 등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성인기 이행은 최근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Arnett, 2006; Settersten & Ray, 2010). 이는 부분적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이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과 자립의 관문인 양질의 취업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더 많은 교육·훈련·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가정과 부모의 다각적인 지원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실제로 가족 자원(family resources)이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더 유리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자녀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Swartz, 2008). 이에 비해 취약계층 청소년 및 청년들은 부모의 지원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일반청소년들과 같이 진로탐색 및 준비를 충분히 갖기보다 취업에 초점을 두어 훨씬 일찍 성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경향을 보인다(은기수, 박건, 권영인, 정수남, 2011).

가정이 없거나 가출 등으로 인해 가정 외 장소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아동양육시설 등¹⁾에서 성장한 청소년, 피치 못할 이유로 집을 나와 청소년 쉼터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그리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여러 사유로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할 경우 누구보다 일찍 자립을 맞이하게 된다. 이들 중 가출 청소년의 경우 개별 청소년 쉼터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준에 그쳤으

1)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법에 우선 적용되는 청소년의 경우 오랜 기간 학계와 현장의 문제제기로 아동자립지원단과 여러 현금 및 현물서비스 제공(표준화된 자립준비프로그램, 자립생활관 사업,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 등 자립지원의 틀이 마련되어 충분한 지원여부와 만족도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있다.

며, 2018년에 이르러서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한 본격적인 국가지원 대상이 되었다. 또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 2016년에 청소년복지시설로 편입된 이래 2019년에서야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역시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천적으로 가정의 지원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또 아직 미흡한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들에 대해 주목하고 이들이 어떠한 자립과정을 경험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출’이란 단어의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가정 밖’으로 용어변경을 권고함에 따라(국가인권위원회, 2017) 상기한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만 9~24세 청소년들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쉼터 청소년들의 자립준비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밝혔으며(예, 오수생, 변상해, 2012; 전미숙, 김형모, 2017), 그중 소수의 질적 연구들은 가출 청소년들의 쉼터 퇴소와 자립에 직면한 상황을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조명하기도 하였다(장주현, 김정애, 2015; 정문진, 김수정, 2016). 그러나 대부분 대도시 중심의 특정유형의 쉼터 이용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여러 지역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청소년들이 가정 밖 생활 중 자립과 직면하여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는지 보여주는 심층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일시·단기·중장기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같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이곳에서 생활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정 밖 생활에 처한 원인과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자립을 위한 진로 준비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는 원가정으로부터의 지원이 거의 없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들의 자립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자립

오랜 기간 동안 자립은 곧 경제적 자립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자립이란 개념 안에 경제적 자립 뿐 아니라 심리적 자립도 포함되는 등(Ben-Ami & Baker, 2012) 보다 넓은 의미로 확대되었다. 심리적·사회적 독립이 포함된 이유는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 살기 어렵고 의미 있는 타인들과 자율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김정연, 하지선, 김인숙, 2011). 자립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성인기에 이르러 비로소 획득 가능한 것이다.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 성장한 개인들은 가정을 비롯하여 학교,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경로를 통해 오랫동안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자립을 준비한다(원지영, 2008). 결국 개인이 자립을 이루기까지 사회의 지원, 특히 가족의 지원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준비 부족으로 인해 자립은 매우 어려워진다(배주미, 김영화, 김범구, 정익중, 2011). 대표적인 예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해야 한다. 이처럼 강제적이고 갑작스런 자립은 앞서 정의한 진정한 의미의 자립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자립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립은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2. 가정 밖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본 연구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이중 특히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고 가정 밖 생활을 하더라도 다시 가정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는 등 개인마다 가정 밖 생활 기간이 유동적이어서 그

지위가 가변적인 특징이 있다.

청소년복지시설은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주거 및 보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시설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²⁾이 포함된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에 따라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가정에서 보호가 불가능한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8a). 또한 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나 회복지원시설 퇴소 후에도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가 어렵고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보호·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8a). 이 시설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 시점인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청소년쉼터는 전국 129개소(일시쉼터 29개소, 단기쉼터 62개소, 중장기쉼터 37개소), 자립지원관은 인천에 2개소, 회복지원센터는 경상지역을 중심으로 20개소로 총 151개소가 운영 중이며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여성가족부, 2018b).

시설 유형별 수용 가능 인원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입퇴소가 매우 잦은 일시쉼터³⁾를 제외하고 단기 및 중장기쉼터, 자립지원관은 1개소당 20명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에 약 2천여 명의 동시수용이 가능하다. 회복지원시설의 경우는 정원이 5~10인 이하인 것을 반영하여 7명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약 140명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이 시설의 하루 총 수용인원은 약 2,200명 남짓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지침(여성가족부, 2018a)에 따라 이들의 입소기간을 단기쉼터는 3개월, 중장기 및 회복지원시설은 6개월이라 가정하면 일 년에 대략 6,7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17년 청소년 쉼터 이용 청소년 수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쉼터 이용 청소년은 거의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 한 해 123개소 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총 31,19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8. 10. 29). 이 수치는 앞서 가정한 한 해에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가능 청소년 수인 6,700여 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실제 이용자 수 집계에서 일시쉼터의 이용자가 포함되었고 보호기간 종료 이내에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많으며 중복지원을 포함하여 누적건수로 계산하는 등에서 기

2) 이 중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여성가족부, 2018b). 가정의 보호와 지원이 어려운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시설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판단 아래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세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 일시쉼터의 보호기간은 24시간~7일 이내이다.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정 밖 청소년들의 특성: 자립과 관련하여

자립과 관련하여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들의 공통적 특성을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은 청소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데 가장 주요한 지원체계이지만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가정이 이러한 지원 역할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서 가출 경험 청소년들이 가출원인으로 가족과의 갈등을 이유로 꼽은 비율이 74.8%로 그 어떤 이유보다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황여정 외, 2016). 특히 높은 반복성 가출청소년의 67.5%는 부모와의 갈등 등 가족문제를 가출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백혜정, 좌동훈, 남기곤, 정경석, 2015). 또한 가정을 이탈한 청소년들의 원가정 형태를 보면 한부모 및 재구성 가족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경제적 상황도 좋지 못한 경우도 많아(김지연, 정소연, 2014; 백혜정 외, 2015) 이들에게는 구조적으로 가정의 충분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맥락에서 경기 지역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6.7%가 주변인(지지체계) 10명 중에 가족을 한 명도 포함하지 않았으며 67%는 가정복귀를 원하지 않았다(전민경, 2016).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정 밖 청소년들 중에는 폭력이나 갈등, 학대, 방임, 빈곤 등의 가정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가정으로부터 보호·지원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성인기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학업이 중단되지 않고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으나 가정 밖 청소년들 중에는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적지 않다. 가정 밖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가정에서 이탈되기 이전에 이미 학교에서 이탈되었다(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2012). 또한 재학 중인 가정 밖 청소년들 중에도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학교에 부적응 상태를 보이는 경우도 상당수이다(남미애 외, 2012). 학교 부적응은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종의 위험신호로 볼 수 있다. 가출 이후에는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학업중단율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일련의 연구들은 가출과 학업 중단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백혜정 외, 201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2015).

셋째, 가정에서 이탈된 청소년들은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있지 않는 한 당장의 숙식과 기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그리고 이후 자립을 위해서 근로 및 경제활동을 필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관련 조사연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아르바이트의 대부분은 식당 서빙을 비롯한 저임금 미숙련 노동인 것으로 나타났다(백혜정 외, 2015; 황여정 외, 2016). 이들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일반적인 고등학교 청소년들(18.1%)의 경험률(황여정 외, 2016)에 비해 매우 높았는데 이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경제활동은 매우 필요한 활동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은 대부분 단기적인 저임금 미숙련 노동으로 이들이 양질의 근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학력 취득 및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근로와 더불어 가정 밖 청소년들은 열악한 경제상황 상 자신의 수입을 보다 규모 있게 사용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계획성 있는 경제활동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당장의 숙식을 해결할 비용도 여의치 않은 가정 밖 청소년들은 복잡한 채무문제 등으로 취업이나 금융 거래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예: 김지연, 정소연, 2014; 백혜정, 김승경, 박세경, 정정은, 2016). 이들은 미성년, 저학력, 불안정한 거주지 등을 이유로 이미 근로 및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채무문제 등이 더해지면 자립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넷째, 가정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서 상태는 자립의 필수요건이지만 이들 중에는 오랜 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례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자살 시도율, 불안·우울 등과 같은 정신 건강의 위험도는 높은 반면 자존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예: 남미애 등, 2012; 백혜정, 방은령, 2009; 유서구, 김응수, 김윤나, 서보람, 강현우, 2012). 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문적인 지원 및 보호를 요하는 청소년들의 입소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체 쉼터의 86.1%가 공격성이 높은 입소자를, 76.5%와 47.38%의 쉼터가 각각 심한 우울 및 자살 시도를 한 입소자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백혜정 외, 2016). 또한 79.1%의 쉼터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이 입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백혜정 외, 2016).

마지막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처해있으면서 가정복귀보다는 자립을 원하는 이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청소년쉼터의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자립을 원하며 가정복귀를 원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백혜정, 방은령, 2009; 남미애 외, 2012). 또한 이들이 쉼터에서 가장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 역시 자립지원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에 대한 욕구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김지연, 백혜정, 2017).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지원 서비스는 미약한 수준이다. 일례로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들은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과 달리 현금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주거 지원 역시 최근에 아주 조금씩 개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밖 청소년들이 기댈 곳은 청소년쉼터를 비롯한 청소년복지시설이다. 시설은 심리적·물리적 지원을 통해 위협하고 힘든 거리생활로부터 탈피할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며 시설생활을 통해 중단되었던 학업을 다시 이어가거나 취업준비의 기회를 얻게 되는 등 미래를 준비를 시켜주는 곳이기도 하다(백혜정 외, 2015). 이 같이 쉼터의 장점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은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쉼터생활을 이어간다(추주희, 2015).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 정도는 매우 열악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봄으로써 이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법을 사용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모색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실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수가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진행되어 왔다(백혜정, 방은령, 2009; 남미애 외, 2012; 김지연, 정소연, 2014; 추주희, 2015).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밖 청소년들의 개개인의 특성(예를 들어,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학적 특성)과 이에 따른 개별적인 생애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면접법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연구 대상의 특성 상,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연구 대상을 대면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데 따른 위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윤리적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인터뷰 이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자의 신분(이름, 지역, 기타 인적 사항)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을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수집된 인터뷰 자료도 관련 정책 개발 및 관련 연구에 한해서만 사용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1. 조사 참여자

면접 조사 참여자로는 성별, 현 거주지(시설 소재지), 소속 시설 등을 안배하여 가정 밖 청소년 30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서론에서 정의한 ‘가정 밖 청소년’을 기준으로 가정에서 나와 청소년복지시설, 즉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다. 단 면접 참여자의 연령은 만15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는데 그 이유는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본격적인 자립 준비가 가능하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며 20세 이상이 포함된 것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만24세까지이기 때문이다. 면접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14명, 여성 16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지역이 18명,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이 12명이었다. 한편 소속시설 별로는 단기쉼터 4명, 중장기쉼터 10명, 일시쉼터 4명, 청소년회복 지원시설 7명, 청소년자립지원관 4명이었다. 가정 밖 청소년 인터뷰 조사 참여자 개요는 표 1과 같다.

표 1

가정 밖 청소년 면접 참여자 개요

번호	성별	나이	학력	지역	소속시설	시설 입소 시기	가정 밖 생활 이유	시설생활 기간	시설생활 이력
1	남	16	고교 재학	경기	중/자립	중 2	가정폭력	1~2년	쉼터
2	남	18	고교 재학	경기	중/자립	초 6	부 소개	5년 이상	쉼터
3	여	22	중학교 중퇴	광역시	중/자립	초 5~6	모가 보육원 보낸	1~2년	쉼터, 위탁교육

번호	성별	나이	학력	지역	소속시설	시설 입소 시기	가정 밖 생활 이유	시설생활 기간	시설생활 이력
4	여	21	고졸	광역시	중/자립	4세부터 퇴소, 최근	보육원 생활 후 부와 연락됨	3~4년	보육원, 쉼터, 임대주택, 자립지원
5	남	21	고졸	경기	일시	19세	여자 친구와 함께 살려고	5년 이상	쉼터, 임대주택
6	남	21	중학교 중퇴	경기	일시	13~14세	가정폭력	5년 이상	쉼터
7	여	19	대재	경기	중/자립	N/A	가정불화/ 가정폭력	6개월 미만	쉼터
8	여	18	대재	경기	중/자립	18세	가정불화	6개월~1년	쉼터
9	여	15	중학교 재학	광역시	중/자립	15세	가정불화/ 부모가 반강제로 내보냄	6개월 미만	쉼터
10	여	18	고졸	광역시	중/자립	16세	부가 보냄	2~3년	쉼터
11	남	15	중학교 재학	광역시	단기	15	가정불화	6개월 미만	쉼터
12	남	15	중학교 재학	광역시	단기	15	가정불화/ 집이 답답함	6개월 미만	쉼터
13	여	20	고교 중퇴	경기	일시	초 2~3	가정불화/ 스스로 나옴	3년~4년	쉼터, 모와 거주
14	여	20	고졸	경기	일시	16~17	친구 소개	5년 이상	쉼터, 친구와 거주
15	여	16	고교 재학	광역시	회복지원	15(중 2)	가정불화	6개월~1년	거리, 회복지원
16	여	17	고교 재학	광역시	회복지원	N/A	재판 결과	6개월 미만	보육원, 거리, 회복지원
17	남	16	고교 재학	경기	중/자립	15(중 2)	가정불화	6개월~1년	쉼터, 거리생활
18	여	18	고교 재학	서울	단기	18	가정폭력	6개월 미만	쉼터
19	여	17	고교 재학	서울	단기	17	가정불화	6개월~1년	쉼터
20	남	23	대학 중퇴	광역시	중/자립	N/A	부모 이혼 후 자신이 나옴	6개월 미만	자취, 쉼터, 거리, 자립지원
21	여	21	고교 재학	광역시	중/자립		부모 사망	1~2년	쉼터, 자취, 친구집, 자립지원
22	여	18	고졸	광역시	중/자립	18	가정폭력	6개월~1년	친구집, 쉼터

번호	성별	나이	학력	지역	소속시설	시설 입소 시기	가정 밖 생활 이유	시설생활 기간	시설생활 이력
23	남	17	고졸	경남	회복지원	N/A	형사재판 중	6개월 미만	소년원, 자취, 친구집, 회복지원
24	남	15	중졸	경남	회복지원	15 (가출 아님)	형사재판 중	6개월~1년	쉼터, 회복지원
25	남	16	고교 중퇴	경남	회복지원	16 (가출 아님)	형사재판 중	6개월 미만	회복지원
26	여	18	고교 재학	경남	회복지원	16	가정불화/ 형사재판중	1~2년	쉼터, 회복지원
27	여	18	고교 중퇴	경남	회복지원	18	형사재판중	6개월 미만	회복지원
28	여	22	고교 중퇴	광역시	중/자립	18	가정불화	3~4년	자취, 중장기
29	여	17	고교 재학	광역시	중/자립	17	가정폭력	6개월 미만	쉼터
30	남	17	고교 중퇴	경기	중/자립	15	가정폭력	2~3년	쉼터

주: 학력 구분에서 대학에는 일반대학, 방송통신대 등이,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특성화고, 대안학교(출석인정) 등이 모두 해당되며, 고졸에는 검정고시도 포함됨.
소속시설 중 중/자립은 중장기쉼터/자립지원관을 의미함.
시설생활 기간 역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였음.

2. 자료의 수집

자료수집을 위해서 가정 밖 청소년 30명에게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 일대일 면접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가정 밖 생활, 학업 관련, 근로(아르바이트 경험), 진로 관련, 현재 경제 상태, 자립 관련 항목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3-4항목의 기본적인 질문이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답변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보충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질문을 통해 면접 내용을 심화시켰다. 면접 조사 기간은 2018년 8월에서 9월까지였으며 일인당 면접 시간은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접진행은 연구진 및 훈련된 석사과정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면접 참여자들은 면접 시작 전에 조사의 목적과 비밀보장의 원칙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 및 녹취에 동의하였다.

IV. 결 과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근거이론(Strauss & Corbin, 1990)을 이용하여 면접참여자들이 가정을 떠나 자립을 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이란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수집된 자료의 코드화 과정을 통해 분석 지침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범주화시키는 분석 작업인 ‘개방 코딩(open coding)’, 그리고 개방코딩에서 발견된 범주들끼리의 연결점을 찾아내면서 그 사이의 변화와 과정을 살펴보는 ‘축코딩(axial coding)’ 과정을 통해 가정을 떠나 자립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이후에는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을 실시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자립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story)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실제이론(substantive theory)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1. 개방 코딩

먼저 개방코딩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여 분류된 자료를 공통 범주로 나누고 개념을 명명하여 최종적으로 66개의 개념들을 생성하였다. 이를 다시 유사한 개념별로 재분류하여 21개의 하위 범주로 묶었으며 비교 분석의 과정을 거쳐 다시 6개의 상위범주로 재구분하였다(표 2).

표 2

가정 밖 청소년 자료 개방코딩

패러다임 모형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1차 사회화 환경의 붕괴	부모(보호자)의 부재 및 방임	부모가 집에 부재함(복역, 이혼), 부모가 양육 시설에 보냄, 친척 집을 전전함
			경제적·교육적 지원을 해 주지 않음, 무관심, 양육 및 보호 체계 없음
		가정 폭력	가정불화·갈등, 욕설, 신체적·정신적 폭력
		학교 생활	교사/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나쁨, 학업에 관심 없음, 학업의 어려움, 자퇴/퇴학

패러다임 모형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맥락적 조건	한국사회의 통상적인 청소년 사회화 과정 밖에서의 삶	길거리 생활	길거리 생활, 친구들과끼리 모여 함께 삶, 배고픔, 추움, 의료 치료 못 받음
		아르바이트	생계형 아르바이트, 장시간 저소득 아르바이트, 4대 보험 안 됨, 일이 고됨, 직장 내 사람들과의 불화
		기초수급	아르바이트 안 하고 기초수급 받음, 아르바이트 하면 기초수급 못 받음, 둘 다 가능했으면 좋겠음
		빚	핸드폰 빚, 소액 대출, 신용불량
		비행/범죄에의 연루	성매매, 사기, 절도, 폭력
중심현상	시설에서의 삶	임신·출산	임신·출산 관련 심리적 불안정, 임신·출산으로 인한 진로 모색의 제약
		신체적/심리적 휴식 및 안정	식사·잠자리 제공, 목욕 가능, 용돈 받음, 교사·도래와의 관계에 만족, 집·길거리 생활보다는 나음
중재적 조건	시설을 통한 지원 및 지지	시설 규칙에의 적응	규칙이 엄격함, 단체 생활이 힘들, 따분함, 인간관계의 어려움
		시설종사자와의 긍정적 관계	부모보다 나음, 어려울 때 달려와 준 사람, 훈육·통제를 함
		학업 지도	학교 교사보다 친절함, 김정고시 준비에 도움이 됨, 좀 더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교사가 필요함
		심리 상담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마음이 안정됨, 믿음이 생김
		소비생활 통제	용돈 관리 받음, 저축 장려
		취업 관련 프로그램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됨, 진로 모색에 도움이 됨,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음
		경제 관련 법적 문제 해소	핸드폰 관련 빚 청산, 소액 대출 문제 해결
작용/ 상호작용	자립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시도	적극적인 진로 모색 시작	취업·진학 관련 선택에 대한 고민, 미래에의 걱정과 불안, 취업활동, 저축·소비생활 관리
		진로 확정 및 본격적 준비	취업과 진학 중 진로를 정하고 그와 관련한 준비 본격화, 진학·취학 관련 준비 및 진로 확정
		가정 형성과 자립 의지 확립	가정을 가지게 되면서 책임감 생김
결과	자립	자립을 위한 기틀 마련	4)

4) 연구 참여자인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우 ‘자립’을 이룬 경우는 없었다. 시설에서의 생활 및 지원이 자립에의 동기 및 기회부여의 의미는 있으나 실제로 이것이 자립으로 이루어질 것인가가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24세 미만이어서 실제 이들이 자립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조사해야 할 부분이다.

2. 축코딩⁵⁾

본 연구에서는 스트라우스와 코빈(1990)의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개방코딩의 결과로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만들었다. 패러다임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개념’과 ‘하위 범주’를 ‘상위범주’로 분류하는 과정을 질적 연구, 그 중에서 근거이론을 연구하는 동료 연구자 2명에게 제시하여 확인받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도출된 6개의 상위 범주들 간의 관계성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상호작용, 결과의 6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소가 서로 인과 관계로 맺어지거나 상호 연결되면서 분석 결과 간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2명의 근거이론 연구자의 확인 작업을 거쳐 과정의 흐름을 검증받았다. 또한 각 요소의 명명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각 요소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개념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인과적 조건으로는 1차 ‘사회화 환경의 붕괴’, 맥락적 조건으로는 ‘한국사회의 통상적인 사회화 과정 밖에서의 삶’, 중심현상은 ‘시설생활 시작’, 중재적 조건은 ‘시설의 지원 및 지지’, 상호작용은 ‘자립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시도’, 그리고 결과는 ‘자립’이라는 개념명을 확정지었다.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한 것이 그림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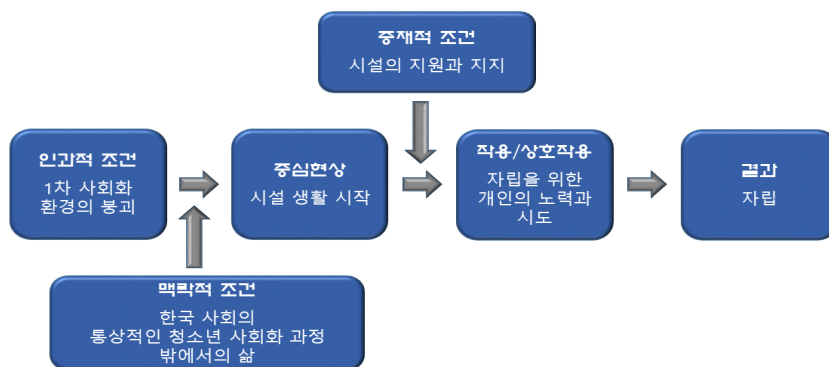


그림 1. 패러다임 모형: 축 코딩

5) 그림 1은 Creswell(2002)이 Strauss and Corbin(1990)의 패러다임 모형을 가시적으로 도식화한 것을 따랐다. 이 모형에서는 ‘인과적/맥락적 조건’이 성숙된 후 ‘중심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중재적 조건’이 개입하고, 이를 조절하면서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되어 ‘결과’를 유도한다고 해석한다.

1) 인과적 조건: 1차 사회화 환경의 붕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 및 조건들(Strauss & Corbin, 1990)로 이 연구에서는 이를 ‘1차 사회화 환경의 붕괴’로 보았다. 이는 가정과 학교가 청소년들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차 사회화 환경의 붕괴는 제일 먼저 가정의 붕괴로 나타난다. 가정의 취약한 상황(빈곤 및 부재)은 가정 내 양육 체계의 부재와 무관심, 방임으로 이어지면서 청소년들은 가정 내에서 머물기보다는 가정 밖으로 내몰리게 된다. 한편 양육체계의 부재는 가정불화로부터 연유되기도 하며 이러한 가정불화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례 22: 엄마가 화나면 때린 적도 많았는데 술 먹고 때리고 엄마가 기억 못 하고 그런 일이 늘어가지고. 엄마가 가게를 하는데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삼촌이랑 같이 자랐거든요. 삼촌도 때리고 협박을 해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삼촌도 때리고 죽인다고 협박도 하고... 중략... (شط터 들어가려고 부모님 동의서 받으려고 하니깐) 그런데는 갈 데 없는데 애나 가는 거라고. 처음에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해서 동의서 받으려고 한 달 넘게 계속 싸웠어요.

사례 22는 가족 갈등과 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으면서 보호체계가 되지 못하는 가족을 떠날 결정을 하였다. 이처럼 가족은 면접 참여자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곳, 그리고 피해야 하는 곳으로 인식된다. 결국 이로 인해 청소년은 집을 떠날 결심을 하고 이를 실행하게 된다. 그런데 청소년의 가출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었다. 가정 밖 생활 과정은 집을 나온 후 길거리 생활, 시설생활을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또 나오고, 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가정으로부터 완전히 나오게 되는 단계로 진행되어 간다. 이 과정에서 가정은 청소년들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갈 만한 연대감이나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며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원초집단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학교에서도 이들에게 적절한 관심과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학교 역시 1차 사회화 환경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면접 참여자들의 학력 분포는 중

학교 재학 3명, 고등학교 재학 10명,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고졸 포함) 8명, 대학 재학 2명, 학교 자퇴 7명이었다. 현재 학교를 다니는 면접 참여자에게 학교생활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때 이들의 답변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별 관심 없음’과 ‘공부의 어려움’이었다.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학생’, ‘공부하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청소년의 일반적인 사회화 과정도 학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서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부에 관심이 고 가정에서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면접 참여자들은 다른 학생들의 학업 수행을 방해하고 학교 위신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학교(교사)에서는 이들을 통제하고자 하는데 이에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적응에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사례 10: 그런 것도 있었고 가장 방황 할 시기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
나 싶고. 그런 시기였는데 담임 선생님을 너무 거친 분을 만나서. 여자
분이었는데 분명 다른 애들이랑 다 똑같은데 나만 잡는 느낌

한편 학교에서 또래 관계를 맺기 어려운 점도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였다. 또래 관계 형성이 어려운 이유는 자신의 가정사나 어려움을 학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사례 10: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 거짓말하면 다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 불편하
기도 하고. 근데 담임선생이나 다른 분들이 막 말할 때가 있어요. 좀 크게.
그럴 때 불편하기도.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솔직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래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들의 상황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 상황이 이들의 심리발달 및 교우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무심한 교사들의 언급이나 행동은 이들에게 더더욱 상처를 주게 된다. 이로 인해 면접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정 뿐 아니라 학교 역시 이들에게 1차 사회화 과정의 환경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맥락적 조건: 한국사회의 통상적 청소년 사회화 과정 밖에서의 삶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이란 사람들이 작용 및 상호작용을 통해 반응해야 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의 집합이나 조건의 양상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청소년들은 집을 나온 후에 전전하는 생활을 하면서 숙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 이 과정은 맥락적 조건의 하위범주인 ‘길거리 생활’, ‘아르바이트’, ‘기초수급’, ‘학교생활’ ‘빚’, ‘비행, 범죄에의 연루’, ‘임신 및 출산’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은 집에서 나온 후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경험하고 숙식 해결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매우 고되고 위험하며 그 대가도 턱없이 낮다. 근로기준법 상 15세 이하의 청소년이 노동을 하는 것은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⁶⁾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일자리 여건도 좋지 않다.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대개 신체적 노동은 필요하지만 숙련된 경험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단순 노무직으로 급여도 낮고 노동 조건도 좋지 않은 일이었다.

사례 26: 그 때 9시에 가 가지고 8시까지 했는데 4만원 밖에 안 줬어요. 점심도 10분 먹고 계속 서 있었어요.

면접자: 9시에 가서 8시까지 했는데 4만원을 받았다고요? 그 당시 시급이 얼마였어요?

사례 26: 모르겠어요. 최저시급이라고 했는데 4만 얼마 주던데.

면접자: 왜 이렇게 적게 주냐고 뭐라 안했어요? 신고했으면 일한 만큼 받았을 텐데.

사례 26: 그 때 당장 돈이 필요해서.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빚을 지거나 사기·절도·성매매 등의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중첩적이다. 즉 친구나

6) 근로기준법 제64조에 근거한다(<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706&efYd=20190115#0000>에서 2019년 1월 3일 인출).

지인에게 돈을 빌리다가 이것을 제대로 못 갚게 되어 소액 대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개인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고 다시 그 돈을 못 갚아서 협박을 당하게 되면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매매의 유혹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힘든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쉽고 보수가 높은 일”(사례 16)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달된 SNS 환경은 이들이 성매매를 쉽게 접하게 하는 매개체(“그때 앱을 몰랐고요. (친구가) 열심히 뭘 해요. 그랬다가 제가 뭐하냐고 그랬더니 조건 만남 그런 걸 찾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도) 했던 것 같아요”)가 된다. 여성 면접 참여자 경우에는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도 있었다. 가정과 학교를 통한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이나 출산을 한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진로를 모색해가는 과정은 한층 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다. 종합해 보면 가정 밖 청소년들은 1차 사회화 환경을 떠나 삶을 개척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체·심리·경제적·법적으로 열악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청소년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 즉 가정 내 보호 하에 학생으로 생활하는 청소년들과는 매우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3) 중심현상: 시설 생활 시작

중심현상이란 “여기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연구 대상자가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과 자용/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양태 및 사건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의 중심현상은 ‘시설 생활 시작’이며 가정 밖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도움을 찾아 시설에 입소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의미한다. 중심현상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위한 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시설 생활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 보다 중요하게는 자립을 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일종의 전기(turning point)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현상으로 봤다. 사실, 시설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짧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자세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냥 너무 길거리 생활에 지친’ 나머지 ‘씻을 곳을 찾아서(사례 5,

23)', 또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사례 13, 17, 21), 또는 '반 강제로' 시설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자신들의 의지가 확실히 들어간 중요한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나 연구자가 이들의 삶의 과정을 통시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 계기로서 '시설생활을 시작'한 것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중요한 '중심현상'으로 보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심현상인 '시설생활 시작'의 하위범주는 '신체적/심리적 휴식 및 안정'과 '시설 규칙에의 적응'이다. 면접 참여자들은 일단 집을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거리에서 지내거나 혼자서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심신이 피폐해진다. 이러한 상태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가정 밖 청소년 지원시설을 알아보고 입소하거나 교화기간 내에 반강제로 입소하기도 한다⁷⁾. 길거리 생활을 하다가 처음 입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일시 쉼터로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청소년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고 깨끗한 잠자리와 생활용품들을 제공받게 된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별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시설에 입소하였기 때문에 시설에 처음 입소한 후에 "계속 내리 잠만 자다가 나오는" 일이 많고 스스로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결심이나 동기는 많이 약하다. 이들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거리로 돌아오게 된다. 한편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단거나 중장기쉼터로 들어갔다가 보호기간 만료 이전에 나오는 경우는 통제나 훈육을 받고 살았던 경험이 별로 없는 이들에게 그 생활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설에 입소하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생활의 어려움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과정이 새로운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4) 중재적 조건: 시설을 통한 지원과 지지

중재적 조건이란 중심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거나 변화를 주는 조건으로서 맥락 내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요건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을 통한 지원 및 지지'의 구성요소인 '시설 내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학업지도', '심리상담', '소비생활 통제', '취업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법적 문제 해소'

7) 소년법에 따라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 중 가정의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나 청소년쉼터에 위탁되기도 한다(여성가족부, 2018b).

가 이에 해당한다.

면접 참여자 대다수는 시설에서의 생활에 꽤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시설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0~10점(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내에서 표시하도록 했을 때 27명(90%)이 7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부모 및 보호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관계 악화는 청소년들에게 가족 내에 머물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막상 가정 밖으로 나온 이들은 어떻게 생활을 꾸려가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숙식과 상담을 제공하는 시설의 존재는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찾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사례 3: (여기 생활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오래 저는 봤잖아요. 이 선생님 저 선생님도 많이 봤지만 부모님 같아요. 나한테 제가 갈등 때릴 때도 많지만 붙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진짜 엄마 같아요. 시설도 좋고 내가 나쁜 길로 안 빠지게 해주시니까. 나쁜 길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지내니, 안 보이면 어떻게 지내길래 안 보이니.

시설 내의 선생님은 면접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멘토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사례 3은 부재한 엄마의 모습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는 시설 선생님들로부터 찾고 있었다(“진짜 엄마 같아요.”). 학업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시설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사례 25는 학업 수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로 ‘(학교 밖) 선생님’의 존재를 언급하였다. 학교 밖 선생님(시설 내 선생님을 의미)이 일대일로 학업 수행에 도움을 주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한다(학교 쌤들 보다는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이는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받는다고 느낄 때 학업 수행의 의지가 더 단단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학업이 중단된 면접 참여자들 중 시설에 들어 온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례가 많았고 실제로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중졸 및 고졸의 학력을 취득한 사례들도 보고되었다(사례 20, 23, 24). 시설에서 연계하여 제공하는 상담 및 진로 관련 프로그램도 이들이 시설 생활에 만족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사례 19는 시설 내에서 바리스타 및 원예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렇다고 시설 생활에 대해 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 중 많은 수가 시설 내의 엄격한 규율과 통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스트레스를 주말에 용돈을 쓰는 것으로 풀고 있었다. 즉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외출제한(통금시간)과 외박금지 등으로 엄격한 생활을 하다가 주말이 되어 통제와 규율이 다소 완화되면 밖에 나와 친구들을 만나고 노는 과정에서 소비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놀면서도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생활을 스스로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시설의 선생님들은 용돈을 맡아서 관리하거나 통장을 만들어 주고 규모 있는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미래를 설계하게 하도록 지도하기도 한다(사례 12, 14, 15, 16, 21, 22). 경제관리 지원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사례 22는 선생님이 자신의 돈을 용돈통장과 자립통장으로 나누어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돈의 씹씀이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저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처럼 선생님이 관리·감독하는 시스템 하에서 몇몇 면접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돈을 쓰면서도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한편 가정 밖 청소년들 중에는 빚을 지고 있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시설에서 이 문제 관련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면접자: 옛날에 혹시 빚을 진 적이 있어요?

사례 15: 그렇죠. 밖에서 지내다 보니까 애들끼리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떤 언니한테 돈을 얼마 빌렸는데 그게 기간에 왔는데 못 갚다 보니까 이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된 거죠. ..중략.. 확실히 애들 사이에서 소액대출이라고 많이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애들은 급하고 하니까 되게 많이 빌리고 엄청 쪼아대 가지고 타 지역으로 도망가는 애들도 있고.

면접자: 험박하기도 하고?

사례 15: 페이스 북이라고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욕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확실히 불법적인 거잖아요. 이자를 받는 건. 그러니까 뭔가 경찰서 가서 신고하는 애들도 있는데... 제대로 처벌이 되지도 않고 이게 신고를 해 봤자 거기

가서 진술서 쓰고 나오는 게 끝이고, 그러니까 애들도 별로 경찰한테 도와달라고 할 생각도 안하고 그냥 자기 혼자서 열심히 막아내다가 결국 그게 터지는 거예요.

면접자: 이자가 자주 커지니까 갚는 시기가 계속 늦어지나 봐요.

사례 15: 그런 것도 있고 여기서 쫓아대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이쪽으로 막고 이쪽 이자가 늘어나고 있고 계속 돌리다 보면 나중에 막히니까.

면접자: 주변에 그런 친구 봤어요?

사례 15: 그렇죠. 그래서 타 지역으로 도망가는 친구도 봤고, 그 부분이 애들 사이에서 심각하기는 하죠.

미성년자의 경우 빌리는 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돈을 못 갚는다 해도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문적인 대출업체와 연관되기보다는 개인이나 소규모로 활동하는 소액대출업자와 연관되는 일이 많다. 소액 대출업자는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돈을 빌린 청소년들은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빚이 점점 커지면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 25는 부모가 원금을 갚아 줬지만 사례 15의 경우에는 가족 형편이 좋지 않아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결국 사례 15가 입소한 시설의 선생님이 개입하여 돈을 빌려 준 소액업자(사례 15는 친구라고 지칭)에게 연락, 시일을 두고 갚도록 주선해 주었다. 사례 15는 자신이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었는데 선생님이 그것을 알려 주었고 이를 통해 돈을 갚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을 나와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시설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해 만족도 또한 비교적 높았다. 물론 그 도움이 이들의 상황을 한 순간에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이들로 하여금 상황을 타개할 만한 기회와 동기부여를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시설의 지원 및 지지’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삶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중재적 조건’이 된다.

5) 작용/상호작용: 자립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시도

사람들이 상황에 대면하여 문제 및 쟁점을 다루고 이에 대처하는 방식은 작용/상호 작용이라고 불리는데(Strauss & Corbin, 1990), 이는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하는가, 더 나아가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시설로부터 제공받은 지원(중재적 조건)에 대해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면서 ‘자립을 위한 시도’를 하게 된다. ‘자립을 위한 시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적극적인 진로 모색과 준비’, ‘멘토의 도움’, 그리고 ‘가정형성과 자립 의지 확립’이다.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때 공통적인 답변은 ‘거주, 수입, 취업’이었다. 그 외에 ‘학력’이라든지, ‘심리적인 안정’, ‘헝그리 정신’ 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자립에 있어서 경제생활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립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 ‘자신은 부모님과 계속해서 살 것’이라는 답변부터 ‘지금 당장’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답변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 중 하나는 면접 참여자의 연령이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연령이 낮을수록 자립을 그다지 시급한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고 혼자서 살려는 마음보다는 부모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클 것이다. 예를 들어 면접 당시 15세인 사례 25는 자립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막상 자신은 아직 자립하고자 하는 의도나 생각이 없으며 부모님과 같이 살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면접 참여자의 나이가 어릴 경우 자립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없으며 자립을 위한 준비도 별로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면접 참여자들이 자립에 대한 생각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립에 대해 매우 추상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자립의 시기를 먼 미래로 여기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한편 인터뷰 참여자 중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진로를 찾은 경우도 드물게 발견되었다. 사례 1은 16세이지만 이미 자신의 적성(요리)을 발견하고 그 쪽으로 진로를 정한 상태이다. 쉼터의 지원을 통해 요리 관련 학원을 1년 동안 다녔으며 현재 주방 보조 일도 하고 있다. 앞으로 요리 관련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며 틈틈이 연습 삼아 쉼터 사람들에게 요리를 해 주기도 한다. 사례 5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의 의미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이해하게 된 경우이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아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사례 5: 아내를 만나고 일단 일은 해야 되니까 일할 곳을 찾다가 여기를 면접을 봤어요. 사장님께서 제가 인상이 좋다고 웃는 게 예쁘네 하면서 너 내일부터 여기 출근하고 잘해보자 하고..중략...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사장님이 되게 사회를 잘 가르쳐줬어요.

면접자: 어떤 걸 가르쳐줬는지 기억나세요?

사례 5: 제가 주방을 못해요. 못하는 게 주방이다 싶으면 그 주방 쪽만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걸 너가 마스터를 해라. 저는 그때 제가 이쪽에 빠삭하면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네요? 이거 하나 마스터하고 저거 하나 마스터할 때 마다 ‘너 월급도 5만원 10만원씩 올려주겠다.’ ‘진짜요?’ 하고 진짜 마스터를 해보겠다고 엄청 노력했어요. 5개월이 지나니까 다 할 줄 알고.

면접자: 굉장히 빠른 시간이네.

사례 5: 이렇게 빨리 배울 줄 몰랐는데..중략.. 실수를 하면서 그런데 사장님이 혼낼 때는 혼내고 그때 딱 혼내고 말아요. 친한 형 이런 느낌으로 직접...중략...사장님이 저를 많이 가르쳐 줬고 도움을 주셨고.

사례 5는 현재 21세의 남성으로 결혼을 하였고 자녀(1세)를 두고 있다. 사례 5는 12세에 가출하여 처음에는 일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가정을 이루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일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례 5뿐만 아니라 20세 이상의 참여자들은 18세 이하 참여자들에 비해 자신의 진로와 일에 대해서 보다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일과 진로 성숙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사례 5의 경우에는 남편과 아버지가 되면서 경제적 책임을 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아네트(Arnett, 2006)는 성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례 5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청소년 자신의 능동적인 자세와 태도도 자립에의 의지를 갖는 데에 중요한 요소이다. 위의 ‘진짜 마스터를 해보겠다고 엄청 노력했어요’라는 언급은 사례 5가 일에 대해 진지하

게 생각하고 자신이 노력하여 뭔가 이루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시설 생활에서 받는 지원을 그냥 받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신의 노력과 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결과: 자립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정립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하면서 본격적인 자립에의 기틀을 확실하게 마련하게 되는 단계이다. 안타깝게도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 중 아직 이 단계에 와 있다고 볼 만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면접조사에서 아직 자립을 이룬 사례가 없는 이유는 시설에서의 생활은 곧 자립 이전의 생활이며 자립을 이룬 경우는 이미 시설을 떠났기 때문이다. 사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 두면서 후속 연구를 통해 자립 과정을 추적해 가는 편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하였다⁸⁾. 대신, ‘논의’ 부분에서 이들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선택코딩

지금까지의 분석과정을 이론으로 통합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 코딩을 진행하였다. 선택 코딩은 분석된 자료를 이론으로 통합하면서 연구의 중심 주제를 발견하는 과정이다(Struass & Corbin, 1990). 선택코딩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하는 것인데 이는 연구 참여자들을 근거로 한 이론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선택 코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8) 이와 관련하여 귀납적 방식이 아닌 연구자가 미리 모형을 가지고 자료들을 코딩하였다는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다. 심사위원의 논의에 동의하며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할 때 이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질적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을 하는 것 뿐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므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이라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이루어진 단계는 아니지만 그대로 ‘자립’으로 명명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 내 보호자의 부재와 무관심, 폭력 및 방임으로 인한 양육 체계의 부재로 인해 가정 밖으로 나오는 선택을 하였다. 이처럼 가족은 면접 참여자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화 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 그리고 피해야 하는 곳으로 인식된다. 이들은 막상 가정을 나와서 생활하게 되면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숙식과 상담을 제공하는 시설의 존재는 면접 참여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시설 내에서, 그리고 시설 및 타 기관 간 연계 하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심리 상담 뿐 아니라 학업 지도, 소비 생활 통제 및 저축의 장려, 그리고 진로 모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노출된다. 또한 시설의 종사자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부모를 대신해 면접 참여자들의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 속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지원을 기반으로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아르바이트 등을 시도해보면서 취업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 나가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근로와 취업 활동을 통해서 일에 대한 의욕 및 생각 등을 정립하게 되고 이를 통해 경제생활을 기반으로 한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준비하게 된다.

V. 논의 및 결론

이상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을 떠나 시설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모색해 가고 자립을 꾀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모든 가정 밖 청소년들이 선택코딩에서 제시한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 가는 것은 아니며 모두가 자립에의 기틀 마련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갖게 되는 것도 아니다. 각 단계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다양한 난관이 있으며 이에 부딪혀 좌절하고 방황하면서 자립 의지가 꺾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제안은 이들의 자립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각 단계에 존재하는 난관과 장애물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첫째, ‘중심현상’으로서 청소년들의 시설생활 시작은 이들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가정에서 이탈되어 거리를 떠돌거나 여러 곳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던 청소년들에게 쉼터에서 제공하는 숙식과 프로그램은 또 다른 경험이 된다. 물론 일부는 쉼터의 생활과 규칙에 답답함을 느끼며 다시 거리로 나가 또래들과 어울려 생활하지만 불안정한 생활이 계속되면 또다시 휴식을 취하러 쉼터로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거쳐 쉼터에 안착한 청소년들은 자립을 위해 보다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때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거리 생활을 오래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쉼터에 ‘접촉’하여 ‘긍정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이 지친 몸과 마음으로 쉼터에 입소하자마자 규칙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등 조급하고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쉼터를 부정적인 곳으로 인식하고 멀리하도록 한다. 따라서 쉼터는 일정 시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청소년이 휴식을 취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서서히 프로그램으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쉼터를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추주희, 2015). 이를 위해서는 쉼터가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부채한 1차 사회화 환경’의 대안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 참여자들은 쉼터에서의 선생님과 관계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이들에게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타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정 내 청소년들에게는 부모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질의 학습 지도/진로 지도/심리 지원을 제공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이 같은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결국 청소년복지시설 내 청소년들은 이 같은 지원을 쉼터를 통해서 제공받게 되지만 쉼터 예산의 한계로 전문 인력의 배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예산 및 전문가의 지속적인 확보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재적 조건’으로서 시설의 지원 및 지지는 개인별 요구도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자립과 관련한 사회적 지원을 주로 시설을 통해 받게 된다. 즉 시설 내 프로그램이나 시설에서 연계해 주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는 것이다. 이에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은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 종사자 중 자립지원요원의 확충과 이들의 질적 제고를 통해 청소년 개개인의 요구와 수

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예를 들어 연령이나 성별)이 제공된다면 서로 다른 진로 모색 수준을 가진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진로 모색을 하고 이를 통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연령’이 자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 즉 연령이 높을수록 자립의지와 함께 자립에 대한 필요성과 열망이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안하여 연령에 따라 프로그램의 종류 및 직업 연계의 정도를 세분화한다면 청소년들이 진로를 모색하는데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외에 성별도 중요한 요소(육혜련, 2017)가 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본격적으로 작업하지는 못했다. 차후 정책 수립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하여 규모 있는 소비생활과 경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면서도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경제관념이 희박하여 규모 있는 소비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인과 무분별한 채무관계를 형성한 결과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컴퓨터의 교사를 통해 통제와 지도를 받고 나서야 경제관념을 갖추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컴퓨터에서는 이들에게 소비 생활 및 저축과 관련하여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미 자립의 길로 들어선 청소년이 아니라 자립준비과정에 있는 시설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다보니 자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청소년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점이 한계로 나타났다. 이에 시설을 떠나 자립기반을 마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양육시설과 같은 가정 대안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 자립 지원이 열악한 청소년복지시설 내 청소년을 아우르며 보다 다양한 상황의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에 직면하여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각 단계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모색하였다는 데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7). **인권위,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정책 개선 권고-상임위원회 결정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C%B2%AD%EC%86%8C%EB%85%84&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616529>에서 2018년 2월 6일 인출.
- 국립국어원 (201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korean.go.kr/search/List_dic.jsp에서 2018년 2월 8일 인출.
- 김정연, 하지선, 김인숙 (2011). 시설 십대 청소년의 “자립”척도 개발: 십대여성 지원 시설 입소 및 이용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23-53.
- 김지연, 백혜정 (2017).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지연, 정소연 (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미애, 홍봉선, 육혜련 (2012).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배주미, 김영화, 김범구, 정익중 (2011).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 **한국청소년연구**, 22(3), 69-96.
- 백혜정, 김승경, 박세경, 정경은 (2016). **가출 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백혜정, 방은령 (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혜정, 좌동훈, 남기곤, 정경석 (2015).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시설청소년과 보육사들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1, 90-124.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총괄보고서**.

-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8a). **2018년 청소년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여성가족부 (2018b).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 (2018.10.29). **보도자료: 진선미 장관, '청소년쉼터 주간' 맞아 직접 찾아가는 거리상담 나선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에서 2019.1.3. 인출.
- 오수생, 변상해 (2012). 가출위기청소년의 자립생활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변인연구: 쉼터 청소년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7(2), 195-205. doi:10.16972/apjbve.7.2.201207.195
- 원지영 (2008). 아동복지시스템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 현황과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한 고찰. **청소년학연구**, 15(7), 79-107.
- 유서구, 김웅수, 김윤나, 서보람, 강현우 (2012). **가출팜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서울: 여성가족부.
- 육혜련 (2017). 가출청소년의 성매매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9(1), 109-136. doi:10.19034/KAYW.2017.19.1.05
- 은기수, 박건, 권영인, 정수남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취약 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주현, 김정애 (2015). 퇴소를 앞둔 중장기 쉼터입소 가출청소년의 퇴소준비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1-24.
- 전미숙, 김형모 (2017). 쉼터이용 청소년의 생태체계적 요인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5), 231-253. doi:10.21509/KJYS.2017.05.24.5.231
- 전민경 (2016). **경기도 가출청소년의 지지체계 실태 및 자원방안**.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문진, 김수정 (2016). 쉼터 청소년 자립준비 경험 연구. **사회과학연구**, 42(1), 177-207. doi:10.15820/khjss.2016.42.1.008
- 추주희 (2015). **'탈가정' 십대의 주거와 이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청구논문.
- 황여정, 김지경, 이윤주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Arnett, J. J. (2006).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n-Ami, N., Baker, A. J. (2012). The long-term correlates of childhood exposure to parental alienation on adult self-sufficiency and well-being.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0, 169-183.
- Creswell, John. W. (2002).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ng and Evalu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NJ: Pearson Education.
- Settersten, R., & Ray, B. (2010). What's going on with young people today? The long and twisting path to adulthood. *The Future of Children*, 20, 19-41.
- Strauss, A., & Cobin, J. (1990). *The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1st ed.)*. Sage. 김수진, 신경립 역(1996).
- 근거이론의 이해: 간호학의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방법론**. 한울아카데미.
- 근로기준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9년 1월 3일 인출.
-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9년 1월 3일 인출.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self-reliance of runaway and homeless youths residing in youth welfare service centers

Kim, Eunjung* · Baek, Hye-Jeong** · Kim, Heuijin**

This study analyzed how 30 runaway and homeless youths residing in the youth welfare service centers had achieved self-reliance using grounded theory. Most interviewees ran away because they had been ‘badly cared and/or abused in their families and schools(Condition)’. They had moved out of home for safety, but instead ended up getting involved in violence, debt and crime and became homeless and were ‘off the normalized socialization track(Contexts)’. They were ‘admitted to the youth welfare service centers(Phenomena)’ and took it as an opportunity to change their lives. ‘Resources and support(Intervening Conditions)’ provided by the centers helped them to ‘search for a strategy(Strategies)’ to achieve ‘self-reliance and a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Consequences)’. This study also discuss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helping homeless teenagers to deal with the difficulties which they might have experienced in pursuing their goals of self-reliance.

Key Words: runaway and homeless youths, grounded theory, dysfunction of the primary socialization environment, youth welfare service centers, self-reliance

투고일: 2019. 2. 22, 심사일: 2019. 5. 3, 심사완료일: 2019. 5. 15

* Duksung Women's University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